

“약사여래 가피로
하루 속히
쾌유하시길...”

총무원장 사승스님, 호국보훈의달 맞아
국군수도병원 입원 군장병 격려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호국보훈의달 6월을 맞아 지난 24일 성내국군수도병원을 찾아 군의료진과 입원장병을 격려방문했다. 취임 후 매달 복지시설이나 소외이웃을 격려방문하고 있는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한 군장병과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군의료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증스님은 이날 국군수도병원이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내 군법당인 의왕사를 참배한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윤한두 병원장

과 환담했다.

윤한두 병원장은 “60만 국군장병이 연간 2회 정도씩 군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있다”면서 “군병원이 시설이나 인력면에서도 믿고 치료할 만큼 성장했지만 아직도 예전의 군병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불신의 골은 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예전에는 이같은 훌륭한 군병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국군수도병원은 의료환경을 잘 갖춘 것 같다”면서 “최선을 다해 군장병을 정성껏 보살핀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격

지난 24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군의료진과 입원장병을 격려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

려했다.

또한 윤한두 병원장에게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건넸으며 단주와 향로, 향등을 선물하며 군장병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승섭님은 한담에 이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입원병동을 살
펴보며 입원한 군장병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섭님은 “여기가 불편해서서
입원했나”,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하
나” “병실에만 있으면 갑갑하지 않
나” 등 군장병들의 건강과 근황 등을
물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한 불편한 몸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돼 있는 입원 군장병의 여가활용을 위해 책을 선물했으며 불자에게는 단주를 선물하며 약사여래의 가교로 빠른 쾌

유로 군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길 기원했다.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군장병의 한 가족은 “불보살님의 가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수술도 잘 됐다”면서 “원장 선생님께 직접 찾아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신도 은 기쁜활영 후 군법당 의왕사 신도

불교문화행사 보조금지원 공모

총무원, 7월1일까지 서류 접수

불교문화행사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기회가 넓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에 불교문화행

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불교문화행사 보조금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국한되며, 사업내용이 △ 불교문화행사로 자부담 50%이상의 사업 △ 젊은층(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행사 △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교문화행사 △ 다문화 행사 또는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발전에 연계되는 행사 △ 불교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사 등의 분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조계종 소속 사찰 및 불교문화단체에 한해 응모자격이 한정된다. 신청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우

일 도착분까지
수는 심사

기준을 보면, 지역주민과가 우선지원은 층(어린이, 중심의 행사도 우선지원된의 지속적인가능성이 있는도 우선권이단체에 중복나.

되는 사업인
에서 전년도
경과와 기한내
여하고, 정확한
한 사전교육
육 기관은 예
된다. 또 행사
에 정산원료가
예산지원의
한 정산을 위
을 500만원의
년도에 500만
관은 6개 기관
총무원 문화
2.

김종찬 기자

“조계종 자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日동북조선학교, 지진피해 온정 감사편지 보내와

“고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초급부2 김리소)